

‘모세의 기적’ 보라 공룡들이 오라하네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여수편 - 연도·남도



남도의 이름 없는 제2해수욕장. 섬 주민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이 곳은 고운 모래와 소나무 그늘이 있고 주변에 볼거리도 많다.

7월 21일 오후 해무가 짙게 드리우고 비가 내리는 금오도 앞 바다를 벗어나 연도로 향했다. 금오도에서도 40분 정도가 소요 되는 먼바다에 자리한 연도를 가는데 부모, 알마도는 물론 소나무 2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이름 없는 섬 등을 지나쳤다. 출발할 때부터 파도가 심상치 않았지만 연도 주변에서는 그 높이가 상당해졌다. 결국 선장과 논의 끝에 연도 상륙을 포기하고 대신 ‘소리도(연도 등대)’, ‘숨팽이 굴’, ‘코끼리바위’ 등을 보고 되돌아가기로 했다.

숨팽이 굴은 원래 연도를 관통했지만, 여러 선박들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자갈이 쌓여 지금은 막혔다는 것이 선장의 설명이다. 해안은 오랜 풍화작용으로 사방이 기암괴석인데, 그 중 하나가 코끼리 바위다. 소리도 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10월 4일 건립돼 105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지금도 그 자리에서 12초 간격으로 반짝이고 있다.

7월 22일 오전 전남도의 ‘2015년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의 대상지인 여수 남도를 찾았다. 남도는 고흥군과 가깝다. 적금도에서 남도로, 다시 둔병도와 조밭도를 거쳐 여수 화양면으로 연결되는 연도·연륙공사가 한창이어서 우리는 곧 자동차로 이들 섬을 일주할 수 있을 것이다.

남도는 182세대 298명이 거주하고 있다. 곳곳에 숨겨진 보물들이 널려있는 남도에 도착하자 이인남(57·6급) 남도출장소장이 마중을 나왔다. 지난 2월 7일자로 ‘섬 근무’를 명받은 그는 “좋아 한 장으로 섬에 날라왔다”며 “거문도에 안 간 것이 다행”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사도 바닷길 1년에 3~4회 열려 장관 바위서 솟는 물로 젓شم 막걸리 만들어

연도엔 코끼리 바위 등 기암괴석 즐비 숨팽이 굴 위 소리도 등대 105년 역사

이 소장은 500년 전 조상이 입도해 지금까지 수대째 살고 있는 이정세(68) 가고 싶은 섬 간사를 소개시켜줬다. 그는 “한 때 350가구까지 살면서 초·중학교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며 “마늘, 콩, 고구마 농사가 잘 돼 남자는 고기잡이, 여자는 밭일을 맡아서 한다”고 안내를 시작했다.

남도 주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여산(麗山)마을’이라고 부른다. 이리 남(嶺)자가 들어가는 섬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해 60여년 전부터 그리 해왔다. 고흥과 가까워 시집 온 할머니들이 많고, 60세가 가장 어릴 정도로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돼 있다. 김선이(89)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그리웠는지 손을 꼭 잡고 “귀한 손님이 왔다”며 취재진을 반겼다.

남도는 ‘젓شم 막걸리’가 유명하다. 규모가 있는 섬마다 전통 방식의 막걸리를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데, 젓شم이라는 명칭은

남도 맞은편 사도의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아이를 낳고 젓이 안 나오는 여성이 마시면 다음날 젓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팔고 남은 막걸리로 만든 식초도 인기가.

이름은 없지만 섬 사람들이 즐겨찾았던 ‘제2해수욕장’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를 맡은 이 간사는 잠시 눈을 감더니 바위 그늘에서 잡은 맛조개의 맛과 모래탕을 썩고 물제비를 했던 10대의 추억을 들려줬다. 그 해변 인근에 ‘따순기미’라고 불리는, 유독 섬에서 따뜻한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옛날 섬 남자들이 옷을 벗고 이를 즐겼다고 한다. 수령 400년이 넘는 소나무 암수 한 쌍도 그 곁에 있다.

남도에서도 당산제를 지낸다. 섬 주민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지만 그 외 주민들이 삼삼오오 회비를 걷어 연례행사로 치른다.

남도와 규포마을, 그 앞의 사도가 하나로 묶여있다. 규포는 분교가 있던 큰 마을이었으나 최근 15세대로 줄었고, 남자는 3명에 불과한 ‘할머니 마을’로 변모했다. 공룡화석으로 유명한 사도에는 썰물에 가야 공룡알화석과 규화석 등을 볼 수 있다. 남도, 사도, 추도가 ‘ㄷ’자 모양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소위 ‘모세의 기적’의 장관은 1년에 3~4차례 드러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섬사람 이정세 ‘가고 싶은 섬’ 간사

어촌계장·집배원 역임

‘남도항 건설’ 일등공신

남도 토박이인 이정세 ‘가고 싶은 섬’ 간사는 1968년 여수상고를 졸업하고 8년 넘게 ‘마도로스’로 살다가 1980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남도와와의 인연을 이었다. 1991년 여수수협 어촌계장을 시작으로 이장, 우체국집배원 등을 역임한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도항 건설’을 꼽는다.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뒤 2005년에야 기본시설이 완공됐는데, 그동안 300척이나 됐던 마을 배가 70여 척으로 줄었다. 그는 “과거 태풍이 올 때면 외지 선박들까지 몰려들어 자리가 없어 선장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며 “이제 시설을 갖춰놓고 보니 사람과 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학교육까지 시킨 2남1녀가 서울, 광주, 부산에서 살고 있다. 최근 그는 남도와 사도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최대한 남도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그는 “아직 남도가 관광지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도의 유명 관광지인 숨팽이굴. 그 위로 희미하게 소리도등대가 보인다.



조밭도와 둔병도를 잇는 둔병대교 공사가 한창이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웨딩특전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